

老人초청 삼계탕 대접 훈훈한 사랑

제1회 서울녹각삼계탕 경로잔치 마련

한 음식적 주인이 지역내 어르신들을 초청해 점심으로 삼계탕을 대접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서울녹각삼계탕(대표 김상범)은 9월1일 오전 11시부터 관내 70세 이상 노인 1천여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대표는 '돈을 번만큼 봉사하고 살아라'는 부친의 가르침에 따라 경로잔치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부친은 14년째 매년 경로잔치를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1천여민원을 들여 기념품과 삼계탕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연예인 봉사단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과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어렸을 때 운동을 하면서 어둡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더 밝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귀띔하기도 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호남향우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음식을 나눠주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등 봉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서울녹각삼계탕은 9월1일 오전11시부터 관내 70세 이상 노인 1천여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했다.

에 나서기도 해 훈훈한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했다.

또한 서장원 포천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부인과 함께 직접

삼계탕을 어르신들에게 나르며 건강을 기원하는 삼김 행정을 실천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르신들과 함께 초가을 주말 보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10명 자혜원에서 자원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는 9월6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1시까지 포천시 기산면 소재 자혜원에서 어르신 돌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지사장 정홍식)는 9월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포천시 기산면 소재 자혜원에서 어르신 돌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홍식 지사장을 비롯 10명의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봉사활동은 요양원 앞 제조작업, 텃밭정리, 어르신 점심식사 도우미, 평가회 순으로 진행됐다.

요양원 주변에 손길이 가지 않아 자란 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텃밭도 잘 가꾸었으며 점심시간에는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전달하고 직접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식사를 떠 주기도 했다.

정홍식 지사장은 "노인장기요양

보호 신청 대상 시설로 업무상 유대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곳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히고 "앞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가 앞장설겠다"고 말했다.

자혜원 관계자는 "환금의 주말일에도 불구하고 이곳 어르신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서주시는 점 깊이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탈북 소아과 의사 간담 사망 유가족 돕기

2004년 북한을 탈출하여 하니원에서 교육을 받고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주공4단지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한 박성국씨(36·사친)가 간담으로 부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고 박성국씨는 2005년 부인 최영옥씨(28)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산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소아과 의사로 활동했으나 남한에서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단란한 가정

을 꾸려 살다가 지난해부터 간담병이 간담으로 판명되면서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병원에서 지출하고 도움을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두 아이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고 박성국씨 유가족을 돕기 위한 운동이 산동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박씨 유족을 돕는 방법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산동교회(담임 목사 김연동, 011-729-910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고 박성국씨와 부인 최영옥씨,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한탄강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 말끔히 청소

관인의용소방대, 포천시, 관인면 적십자회 등 연합

관인의용소방대(대장 안운빈)는 매년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으로 한탄강 사랑을 실천에 옮겨 냉정2리 용담(용담교)에서 사정리 모래내 유원지까지 강가 주변의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

한탄강 정화활동은 장마철 및 휴가철 기간 중에 상류에서 버려져 방치되었던 건축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강변 주변에 널려 있어 한탄강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포천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청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날 행사는 포천시의 국토대청결운동과 함께 실시했으며 문안대저(대표 이종명)의 후원과 관인면 적십자회원(회장 유해순)과 포천시 내수면 어업계(계장 이창원) 회원 40여명, 포천시 환경미화원들도 오후부터 참여해 말끔히 청소했다.

한탄강의 특성상 래프팅 배 4대를 이용하여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버려져 있던

쓰레기를 수거, 80kg대 250개 분량을 회수했고 그물 및 투망, 페타이어 등 물고기의 생태를 방해하는 물질들도 1트럭 분량을 회수하기도 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한탄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특별예산을 편성해 매년 깨끗한 한탄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월빙

부사의(不思意)

권리(權利)와 권한(權限) 61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권리(權利)와 의무(義務)라는 말을 흔히 한다. 권리란 힘을 말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힘(control power)을 말하는 것이다. 권트를(control) 당하는 것이다. 컨트롤(control) 당하는 것이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他人)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강제성(強制性)을 띠는 것이다. 하지만 권리가 싫다고 그만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으나 싫으나 해야 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이를 듀티(duty)라고 한다. 이 뿐이 아니다. 오블리게이션(obligation)이란 말도 있다. 듀티가 남을 의식(意識)하는 것이라면 오블리게이션은 나를 의식하는 것이다. 나의 양심(良心)을 의식하는 것이다.

권한이란 권리의 한계(限界)를 말하는 것이다. 권리의 제한(制限)을 말하는 것이다. 너나

권한을 말하기 전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할 것 없이 권리만을 주장(主張)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세계가 될 것이다. 힘센 자가 잡아먹는 동물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권리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헌법(憲法)이요, 법전(法典)에 실려 있는 모든 법조문(法條文)이다.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한계를 벗어나면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고 월권행위(越權行爲)가 되는 것이다.

권리와 권한은 이처럼 엄격(嚴格)히 구분되는 것이다. 권한은 법령(法令)에 의해 일정한 자격(資格)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재량(裁量) 내지는 제한된 힘이다. 권리에선에서는 권리의 일부로 논의(論議)되기도 하지만 권한은 개인의 자의적(恣意的)인 선택을 핵으로 하는 자유권(自由權)과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예컨대 치과사의가 심장수술을 하는 것은 치과사의 권한 밖의 일이다. 치과사의의 권한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規定)되어 있고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직(專門職)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권한엔 이처

럼 그 실행(實行)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권한이 힘은 힘이 제한된 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자격을 갖추므로써 얻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다. 권리를 행사하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한계 내에서만 행사하라는 것이다. 우선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 다스릴 수 있는 한도 내지는 한도이다. 자격을 갖춘 연후에 권리가 부여(附與)되는 것이고 권한이 설정(設定)되는 것이다. 권한을 벗어나면 월권이 되는 것이고 권리만 주장하면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고 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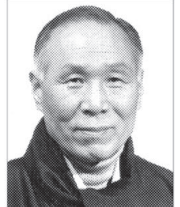
권리를 말하기 전에 의무를 생각해야 한다. 듀티를 생각하고 오블리게이션을 생각해야 한다. 듀티를 다 하고 오블리게이션을 다 할 때 권리가 충실히 되는 것이고 그 당위성(當爲性)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인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충신(忠臣)보다 양신(良臣)을 더 그리워하는 이유이고 충신보다 양신을 더 높이 평가(評價)하는 이유이다.

권한을 말하기 전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省察)해야 한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경계선(境界線)을 인식하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말야야 한다. 말야야 하는 순간 월권이 되는 것이고 법의 심판(審判)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苛責)을 받게 되는 것이다. 권한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부여받은 직능(職能)과 자질(資質)을 간단없이 성찰하고 연마(鍊磨)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오소리티(authority)를 지켜야 한다. 권위(權威)를 지켜야 한다.

권위를 지키고 권위의식(權威意識)을 가져서는 안 된다. 권위는 현재(現在)의 것이요 권위의식은 과거(過去)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것이요 지난날의 것대이기 때문이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를 무시하고 권위의식만 찾으면 안 된다. 이미 트렌드(trend)가 바뀌고 데이터(dater)가 바뀌었다. 관행에만 집착하지 말고 권리와 권한을 새롭게 인식하자. 그리고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이어나가자.

(011-9262-4491)



이규임
한국행정학회 명예회장

ESSAY 아름다운 동거

오늘따라 몸이 무겁습니다. 새벽 두시부터 시작되는 하루는 오후 4~5시쯤 되면 지치게 되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네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탕 속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고 싶어서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옆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두 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5~60대의 두 아주머니가 다정스레 마주앉아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서로 등을 밀어주고 받까지 씻겨주시는 것이 보름 사이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모녀지간이라고 보기에 너무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 친척인가? 아니면 언니, 동생 사이? 그런데 전혀 닮은 모습은 아니고...' 의아해하며 저도 모르게 자주 눈길이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힐끗힐끗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그분들은 그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소중하게 닦아주고 헹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욕을 다 끝낸 후 탈의실에 나와 보니 그분들이 마주 앉아 서로 옷을 헹겨주시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물어보았죠.

'언제나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자 조금 젊으신 아주머니가 '원 여섯 이예요.' '옆에 계신 분은 요?' '예순 다섯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여 어떻게 된 관계인지 더욱 궁금했습니다.

'그럼... 모녀지간은 아닐테고...'

제가 말꼬리를 흐리자 두 분 아주머니는 제 생각을 눈치 채고 빙그레 웃으시며, '고부지간, 시어머니와 며느리예요.' 하시는 겁니다.

'어머나... 그러세요?' 제가 놀라워하자, '남편이 죽고 자신들도 다 찼다고 떠나서, 이런 이렇게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요'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만남도 있구나!' 참 기막힌 인연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고부지간이라고 하면 엄청 어려운 관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부럽다는 생각과 함께 저의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참 무섭고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셨던 시어머니는, 스물여덟 젊은 나이에 시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고생이던 고생은 다하시며 제 남편과 시누이를 키워 내신 분이라 잔정이 없고 엄하시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생각납니다. 명절 전날, 저는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를 찾아뵙게 됩니다. 제가 가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된장찌개, 북어대가리를 넣고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는 지금 생각해도 힘이 넘칠 만할 맛이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잘 먹는 저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늦은 저녁 제사음식 준비를 끝내놓고 함께 자리에 누워 TV를 보는데 가수 나훈아가 노래를 하기에 제가 '어머나, 사람들이요, 빈나 아빠더러 나온 거 없었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빈나 아빠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빈나 아빠도 그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하고 너스레를 떨면 시어머니는 '헛, 그대도 지 남편이라고 더 잘생겼나 이거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하시면서도 은근히 좋아 하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명절 때마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고스톱'입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잘 치지도 못하면 서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합니다.

그런데 아무 계산도 없이 미꾸 치니까, 정말 잘치는 아이들 고모부와 남편이 오려려 돈을 잃게 됩니다. 매번 따는 사람은 저와 시어머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시누이가 한바디 합니다.

'나중에 둘이(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이 할 게 있어서 심심하지 않겠네...'

그렇게 한 돈을 시어머니께 용돈 겸해서 드리는 기분도 괜찮았습니다. 명절날 제사지낸 후에, 둘이 가 일할 걱정까지 해주시며 아침만 먹고 나면 일찍 떠나라고 미리미리 음식도 싸 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며 빨리 가라고 채근하시던 시어머니... 그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부럽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나이 들어 고부지간에 서로 의지하고 오붓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름다운 동거는 어느 누가 봐도 감탄사가 나올 만큼 행복해 보입니다. '두 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김미경
주부행복지단 부단장

詩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수없이 많은 날들
날날이 흘러져 지나온 시간들
마음속 깊은 곳 간직한 채
떠나질 않네.

이제나 저제나 그리며 살아온 세월
등지자 흘러져 마음 갈피
보이지 않고.

감작스럽게 변해 가는 현실과 삶이
더욱 어렵게만 돌아가고

언제 다시 열려 온 속내 녹이려
첩첩산중 가도가도 끝이 없으니
이내 한탄만 나누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간절해도
등지가 없으니 마음만 간절하네.

언제 다시 간곡한 심사 파헤쳐
노래 부를 날 있으려나.

다시 한번 기다려 봄세
한 세상 끝이 나도.



정학실
주부행복지단

현대의 차 문화 13

백두산차 해발 2천m 이상 백두산 정상에서 자란다

한국의 차성(茶聖)이라 이르는 초의선사의 동다송에 보면 백두산(白頭山)에 차가 있다고 하였다. 한민족(韓民族)의 령산(靈山) 백두산은 최근 천지를 오르는 등산로가 정비되어 오르기가 쉬워졌지만, 수 백년 전에는 목숨을 걸고 오를 수 밖에 없었던 험한 길이었다. 약한 화산암이 풍화되면서 낙석이 끊어지지 않고, 어느 한곳 안전한 발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험한 산길을 힘들게 오른 우리의 선조들은 백두산 산정(山頂) 부근에서만 자생하는 차잎을 한줌 뜯어 천지의 맑은 물에 달여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용으로 백산차를 이용하였다. 백두산차의 본래 이름은 고산차화(高山茶花-가오산차화)이고, 이는 대엽종백산차를 말하며 해발 2000m 이상의 백두산 정상에서만 자라는데, 이는 목이 없는 철쭉과의 식물이며 키는 10~30cm 전후로써 마치 잔디처럼 백두산 산정(山頂)을 덮고 있다. 6~7월에 피는 유백색의 꽃은 모양이 진달래와 같고 현지에서는 유황색(乳黃色)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종의 소엽종 백산차의 특징은 잎이 가늘고 해발 1000m 남짓의 숲이나 높은 수분이 많은 곳에 빛이 좀 많은 곳은 무릎높이로 숲 속 그늘에서 자라는 모습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백두산 정상을 오르는 중국측 관문인 북부에서 서문에 이르러가니 180여km가량의 비포장 삼림도로(森林道路)를 경유하는 동안 곳곳에 대량으로 서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백산차는 목이 없고 솔잎의 향이 많고 차(茶)향이 약하게 나며 기어의 초목향이 어우러져 있다. 현지에서 대대로 살아왔다는 관공서 친구 정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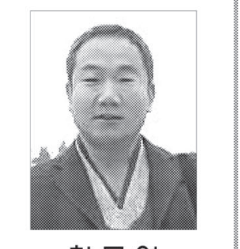
의 도움을 받아 차에 관심이 많은 원로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가오산차화는 예로부터 음용보다는 제천의식에 기도용으로 사용되던 섬스러운 우리 한(韓)민족의 차(茶)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부는 신라때 당나라로부터 들어온 차종이 지리산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섬진강의 화계동천 인근은 전형적인 여러 차 자생지와 기후와 지형이 닮아 있어 토착화되기에 좋은 환경이다.

우리 차(茶)가 문헌으로 통계를 갖춘 1530년 신증보-동국여지승람 에는 경상도에는 마산 양산 동래 밀양 진주 곤양 함동 산을 단성 진해 등에, 전라도에는 전주 천룡사 부근 나주 광산 영광 함평 고흥 장성 진원 무장 고수 흥덕 부안 태인 남평 무안 김천 해남 남원 담양 순천 낙안 보성 광양 동북 화순 등지에 토산차 및 재배 차가 있는데 주로 사찰을 끼고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집계에는 광주(光州)에서 5톤을 포함 전남지역에 48톤의 차 잎이 생산되었다고 하니 전국적으로는 약 20~30톤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전통의 차로써는 딱차의 일종인 청대전이나 산차(散茶)형태의 백운옥관차 등이 있으나, 명확한 전통재배에 대한 명백이 잡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의선사 의순,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선생과 같은 올바른 민족 정신을 계승해온 분들의 기록과 실체로 차 문화가 오늘날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음에 감사한다. 우리의 차는 아미노산 데아닌 카데킨 및 수종의 폴리페놀 비타민을 함유하여 비만방지 피로회복 숙취 제거 항암효과 등이 뛰어난 고급식품이다.

문의:011-9750-1883



황무연
지정대표